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

30일 상세계획 확정·발표 9월 말까지 90% 지급 추진 카드 캐시백 10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상생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 개시해 9월 말까지 90% 지급을 추진하되 지급 시작 시점을 포함한 상세계획을 오는 30일 확정·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며, 백신 접종률에 따라 재개하려던 오프라인 소비쿠폰은 재개 시점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카드 캐시백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800원이 기준이다. 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자 등은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도 차이점이

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정부는 약 20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재원은 11조원이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증정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생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됐다.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실적을 계산한다. 배달 앱을 통한 소비는 실적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1인당 월별로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합금받은 증정금은 별다른 제한 없이 사실상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연합뉴스

지급받는다.

◇ 직업계고 취업 연계 장려금 400만~500만 원 = 청년특별대책에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준비 기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내년에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훈련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업계고 학생의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2019년 65.1%에서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지난해 60.4%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내년 직업계고 학생 1천500명에게 맞춤형 직무교육과 훈련을 지원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사회진출을 돕는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졸 취업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1인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18~49세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18~49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광주 북구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내년부터 중산층도 '반값 등록금'... 대학생 100만명 혜택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 직무교육 지원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혜택을 대학생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특별대책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서민·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확대...8구간 350만 원으로=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 수준의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 5-6 구간은 390만 원, 7-8 구간은 350만 원까지 단가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연간 각각 24만 7000 명, 31만5000 명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이 돌

아갈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현재 5-6구간의 경우 각 368만 원, 7구간은 120만 원, 8구간은 67만5000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 수준이며, 8구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작년 1학기 기준 507만 원으로 통계청 소득 10분위 중 6분위에 해당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에게는 연간 700만 원,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수혜 인원은 각각 1만3000 명, 6만 2000 명으로 추산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 명)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 직업계고 취업 연계 장려금 400만~500만 원 = 청년특별대책에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준비 기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내년에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훈련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업계고 학생의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2019년 65.1%에서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지난해 60.4%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내년 직업계고 학생 1천500명에게 맞춤형 직무교육과 훈련을 지원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사회진출을 돕는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졸 취업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1인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희망의 땅으로' ...아프간인 378명 입국

코로나 검사 뒤 진천으로... 나머지 13명 조만간 들어올 듯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그 가족 378명이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마침내 탈레반 위협에서 벗어나 '희망의 땅'에 발을 디뎠다. 정부가 분청 지역의 외국인인을 이처럼 대규모로 국내 이송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을 태운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은 26일 오후 4시24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해 약 11시간을 비행했다. 전체 입국 대상인 391명 가운데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남아있는 13명은 다른 한국군 수송기를 타고 조만간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정팀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으로 일한 전문인력과 그들의 가족이다. 가족 중에는 10세 이하 어린이와 노약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은 공항 내 별도 장소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공항 근처 임시시설에서 대기하다 음성이 확인되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인재개발원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면서 정착 교육을 받다가 6~8주 뒤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기방문(C-3) 도착비자 발급 뒤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을 부여했다. 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친 뒤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가 발급된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공세가 거세진 8월 초부터 민간항공기를 이용해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을 준비했지만, 상황이 급박해지자 지난 23일 한국군 수송기 3대를 현지에 보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을 국내로 이송한 것을 두고 "국격이 높았다"고 극찬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부심 느끼게 될 계기"라며 "국격 상승의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높아진 국격과 달라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확인하는 참 뿌듯한 날"이라며 "국가의 선진적인 모습 보여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 한미훈련기간 내내 연락 시도에 '무응답'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개시에 맞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다시 차단했던 북한이 훈련 종료일인 26일에도 남북의 정기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오늘도 아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 시도가 있었지만, 북측은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 역시 이날 오전 진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재차단은 이날로 16일째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2주간은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과 오전·오후 정기통화를 진행했으나,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된 지난

10일 오후부터 다시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훈련 기간에만 통신선을 차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3월 9일 한미 합동 '키리졸브' 훈련 당시 일방적으로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개성공단으로 가는 경의선 육로 통행도 차단했다가 훈련이 끝난 다음 날 곧바로 군 통신선과 육로 통행을 정상화한 적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훈련 종료 이후 북한의 태도나 반응에 대해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이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정기통화 시도를 계속해왔고 이런 식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역학조사 기동대 운영

전남도가 22개 시·군 코로나 대응 강화를 위해 7명으로 꾸려진 역학조사 기동대를 편성,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역학조사관(공보의) 1명, 역학조사원(간호사 4명), 일반 행정직원 2명으로 꾸려진 기동대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수 발생, 역학조사 등 확산세 차단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 지자체에 투입된다. 역학조사 기동대 소속 간호사 4명을 채용 중이며, 이들은 1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진미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22개 시·군 역학조사팀, 도청 소속 역학조사팀의 피로도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역학조사기동대는 확진자 급증 시·군에 신속히 투입돼 역학조사 지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투자, 하실분

- ▶ 덕남동, 빛고을 전대병원 인근
- ▶ 임야 661㎡(구 200평) 지분매매
- ▶ 장/단기 개발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000만원(평당 30만원)

중개현영. 010-3605-5000

상가매매 (상무지구)

1) 40평(전용) 2억3천 (용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3천 (용2억6천)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5억8천 (용 3억6천)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한, 빠,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임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시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내 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대양전기 (이하 '갑')와 대양전기 주식회사 (이하 '을')는 2021년 08월 26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가금지원 업무부담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양 회사는 존속하며 합병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08월 27일

"갑" 주식회사 대양전기 전라남도 순천시 호연1길 4(덕림동) 사내이사 김예민

"을" 대양전기 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리동길 15.2층(대우동) 사내이사 김광중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익 및 주권재출공고

2021년 7월 12일 개최된 당시(이하 '갑')와 청합) 주식회사 흥인(이하 '을')이라 청합)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 합병하여 해산하기에 이르러 아래와 같이 주식을 할당 부여하기까지 이르렀으므로, "갑"의 주권을 소지한 분은 그 주권 전부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할당 교부 방법 : 2021년 8월 27일 17시 현재 "갑"의 주주에 대한 "갑"주식(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1주에 대하여 "을"의 주식(1주당 액면금액 10,000원) 0.3320주를 할당 교부한다.
2. 제공기일 : 2021년 9월 29일
3. 제공장소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554, 1층 1호

2021년 7월 12일 개최된 상기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을"은 "갑"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이계하고 "갑"은 해산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상기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청하도록 합병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갑" 주식회사 흥인 사내이사 노병모

"을" 주식회사 흥인 사내이사 김일규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주차장 06:30 * 다음카페 광주지산학회 ☎ 010 7794 6920

산행안내

9월12일(일)

▲광주지산학회 9월12일(일) 경북 포항&대연산 산행, 연